



중봉에서 남쪽으로 바라본 덕유산선.

최연의 산 이야기 <24> 덕유산 1

유승도의 산에 산에 피는 꽃은

바보들도 살 수 있는 곳

두 사람이 찾아왔다. 한 사람은 여기서 차를 타고 30여 분 거리에 있는 골짜기 깊은 곳을 찾아들어간 사람이고, 한 사람은 산에 거처를 마련했다가 서울로 다시 나간 사람이다. 둘은 친구사이였다.

“애가 산에서 살 때 내가 부탁을 했었지요. 차 소리 나지 않는 곳이면 되니까 알아봐라 고요.”

교사 출신의 남자는 환갑을 넘어섰으나 늙어보이지 않았다. 그곳도 그가 원했던 만큼 조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그가 살던 곳보다는 조용하리라 믿는다. 그쯤에서 만족한다면 계속 살 수 있을 것이다.

방송이나 신문·잡지·책 등을 통해서 자연은 환상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일이 많다. 그러나 도시의 삶과 마찬가지로 산속의 삶도 그리 만만치 않다. 사람을 멀리하고 인간 이외의 생물 혹은 무생물과 어우러져 살아가는 삶을 지향한다고 해도, 사이 좋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모습은 환상에 가깝다.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도 다 자기를 보호하며 삶의 즐거움과 번식을 위해 싸우면서 살아간다. 가만히 보면 자연 생태계와 인간사회는 다를 것이 없다. 인간도 타고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뭐가 어렵다는 것인지, 자신들이 사는 세계가 유달리 잔인하고 경쟁적이어서 슬프다고 사람들은 떠든다. 그 반대로 인간은 아름답고 위대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다. 스스로 잘났다고 하며 스스로 못났다고 한다.

생각하니 벌써 십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여름 어느 날, 한국방송공사의 ‘인간극장’ 제작진이 찾아왔다. 카메라를 든 사람은 집에 들어서자 곧 촬영을 시작했다. 출판사 편집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방송사 작가와의 통화에서 촬영을 허가한다는 말을 한 뒤였다.

피디는 예상 외로 젊은 여자였다. 생김새도 도시에서 객쟁이로 자란 티가 역력했다. 시골이나 자연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출판사를 다니다 일을 접고 들어왔다면서요?”

“그거 뭐 몇 개월 다녔었죠. 그걸 다녔다고 하기도 뭐하네요.”

“그럼 들어오기 전에 뭐하셨어요?”

“여기저기 떠돌아다녔지요.”

말을 나눌수록 뭔가 서로 아귀가 맞지 않았다. 팬클럽 출판사에 다니다 그걸 박차고 나와 가족을 이끌고 산속에 들어간 것으로 얘기를 듣거나 발간 예정인 내 산문집을 미리 보고 자기 나름대로 추측을 한 상태에서 찾아온 것이 분명했다.

맛있는 각본을 머릿속에 구성하고 들어왔는데 서두부터 맞지 않았던 것이다. 피디는 아내에게서라도 자신이 그려놓은 이야기를 찾아보겠다는 뒷 질문을 던졌다.

“교사직을 그만 두고 남편을 따라 들어왔다고 하는데, 들어올 때 심정이 어땠어요?”

“그거 잘못 알려졌어요. 학원강사를 했었는데... 들어온 것도, 그냥 산골 생활도 할 수 있다는 정도였지요. 적극적으로는 않았죠.”

“대학이나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저 보통 정도였죠.”

자신이 생각했던 것을 아내에게서조차 얻어내지 못하자 피디는 얼굴에서 웃음을 겨우었다. 홀로 사는 할머니 집에서 지내며 촬영하길 원했으나 그 집은 방이 하나밖에 없었다. 대신 우리 집의 허름한 방 하나를 보여주었던 건 좋았다. 싫다 말은 하지 않았다.

“식당에 내려가서 밥 먹고 올게요.”

반쯤반쯤 빛나는 차에 올라탄 사람들이 우우 산 아래로 사라졌다. 외양간을 고쳐 마루를 놓은 곳에 고정시킨 채 녹화 중이었던 카메라 한 대만 남았다.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 촬영기사가 홀로 올라와 카메라를 가지고 내려갔다.

책이 좀 팔려서, 인세를 받아 신세 진 사람한테 값기도 하고 돈 걱정 접어두고 글 좀 써보자는 말쑥한 계산이 나오려 하자 스스로 못난 놈이 되게끔 만들었다. 타협이라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었다.

최고의 학벌을 갖추고 최고의 직장을 다니며 최고의 삶을 살던 사람이 뜻밖 바가 있어 그 성공적인 삶을 내던지고 자연에 귀의해서 뜻깊은 삶을 산다는 애인 이제 틀에 박힌 이야기 중에 하나다.

성공한 인간의 얼굴과 돈의 위력은 이미 자연의 품속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다. 바보들도 살아갈 만한 공간은 대체 어디 가서 찾으라고.

■ 유승도 (시인)

덕이 풍부하여 복지를 많이 부러놓았구나

<德>

<福地>

산(山)을 풍수의 관점에서 볼 때 기(氣)를 모아서 돌우는 산과 기를 발산(發散)해서 소진(消盡)하는 산으로 나누는데, 백두대간 상에서 기를 모으고 돌우는 산은 태백산(太白山)과 소백산(小白山) 그리고 덕유산(德裕山)이다.

태백산과 소백산은 백두대간의 중간쯤에 위치하여 여러 갈래로 뻗어나가 소진된 산줄기의 기운을 크게 모아서 북동우어 북쪽으로는 오대산, 설악산, 금강산을 지원하고, 서쪽으로는 속리산을 일구고, 남쪽으로는 주왕산을 일으키고 운문산을 거쳐 동해 금강산에 이르는 산줄기를 이룬다.

덕유산은 북쪽으로는 속리산, 남쪽으로는 지리산, 동쪽으로는 가야산, 서쪽으로는 계룡산 등의 명산들을 일어서게 하고 있다. 기를 크게 모으는 데는 태백산과 소백산이 으뜸이지만 기를 거두어 간직하는 데는 덕유산이 으뜸이다. 그래서 양기(養氣), 수단(修丹)하는 사람들은 덕유산을 더 선호했다.

덕유산(1614m)은 한라산, 지리산, 설악산에 이어 남한에서 네 번째로 높은 산이다. 백두대간이 속리산을 지나면서 충청북도와 경상북도를 가르며 남쪽으로 향하는데 1천m가 넘는 산이 하나도 없이 하늘로 날아오르려는 세가 몸을 잔뜩 움츠린 듯 기운을 안으로 끌어 모으며 몸을 한껏 낮추었다가 황악산을 지나면서 다시 험준한 기상을 내뿜으며 민주지산, 삼도봉, 대덕산을 밟아 올리고 덕유산에 이르러 크게 기세를 떨치고 남은 기운을 한껏 토하

여 지리산을 솟구쳐 올린다.

덕유산은 높고 크기만 한 산이 아니다. 덕유(德裕)라는 이름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덕(德氣)이 풍부한 육산(肉山)이다. 덕유산의 모습은 동쪽과 서쪽이 사뭇 다르다. 동쪽 사면은 계곡이 짧고 바위가 많이 드러나 있어 역센 느낌을 주는데, 서쪽 사면은 계곡이 길고 바위가 없어 아주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덕유산의 정상은 향적봉(香積峰)인데 너부죽하고 두부몽실한 모양이 향을 쌓아 놓은 것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 모양이다. 향적봉을 비롯하여 중봉 등 덕유산의 봉우리들은 참 후덕(厚德)하고 너그럽다.

후덕하게 생긴 산은 화평(和平)한 기운을 내뿜는데 그러한 화평한 기운이 감도는 곳은 사람살기가 좋은 곳이다. 그래서인지 덕유산 주변에는 살기 좋은 복지(福地)가 많다. 덕유산의 동쪽은 김천 땅 지례, 대덕 고을이 서쪽에는 용담(龍潭)과 장계(長溪) 고을이 북쪽으로는 무풍(茂風) 마을이 기대고 있다. 이곳은 높은 산줄기인 백두대간에 기대고 있는 고을들이지만 땅이 기름지고 넓으며 농사지을 물이 풍부하다. 특히 무풍은 덕유산과 대덕산(大德山) 사이에 있는 고을로 심승지(十勝地) 중의 하나이다. 남사고(南師古) 선생은 심승지 중에서도 풍기(基), 무풍(茂), 연풍(延)을 제일 뛰어난 복지로 꼽았다. 이 중환의 <택리지>에서는 “남사고는 무풍을 복지라 했다. 동네 바깥 산은 기름진 밭이라 부촌(富村)이 많다.

이 점은 속리산 북쪽의 마을들과는 비교할 바가 아니다”라고 했다.

백두대간 상에서 삼도봉에서 덕유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는 반원(半圓)을 그리면서 휘어졌는데 무풍은 그 반원의 중심점에 위치하고 있다. ‘구천동 삼십삼경(三十三景)’이라는 명소들을 간직한 뛰어난 경관의 구천동 계곡을 품고 있다.

대덕산과 삼봉산에서 발원한 물줄기들은 모두 무풍에서 합쳐져 금강 상류의 꽤 큰 남대천(南大川)이 되어 서쪽 설천(雪川) 방면으로 굽이쳐 흐르면서 그 유역(流域)에 비교적 넓은 고원분지를 부러놓았는데 그곳에 무풍이 자리잡고 있다. 무풍은 동남쪽으로 백두대간으로 막혔고 서쪽과 북쪽도 백두대간에서 갈라져 나온 지맥으로 둘러싸여 완전히 산속에 갇힌 형세이며 외부와 왕래할 수 있는 길라라고는 설천에 바위산을 뚫은 나제동문(羅濟通門) 뿐이다. 터널의 안쪽은 신라 땅 무풍이고 바깥쪽은 백제 땅 주계였다.

이러한 지형적 특징 때문에 삼국시대의 무풍 땅은 백두대간의 서쪽에 있으면서도 백제의 예봉을 막고 신라 땅으로 남아 전초기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의 심산유곡(深山幽谷)의 대명사가 이북의 삼수(三水), 갑산(甲山) 그리고 남한의 무주구천동(茂朱九川洞)을 일컫는 모양이다.


■ 최연 (아시아문화연대 이사장)

민족사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빌딩 1131호
 T. 02.732.2403-4 F. 02.739.7565
 minjoksa@chol.com www.minjoksa.org

보경 스님의 희로애락 세상보기

이야기 숲을 거닐다

동서고금의 이야기 숲에서 건져낸, 보경 스님이 들려주는 삶의 기쁨·분노·슬픔·즐거움의 지혜!



이야기는 반복에 묘미가 있다. 기도도 마찬가지다. 삶이 부족한 사람은 일러줘도 알아듣지 못한다. 그렇다면 깨우칠 때까지 잔소리를 들어야 한다. 특히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행복한 영혼을 꿈꾸게 하는 마법과 같다. 상상의 안개가 가득 가득 피어야 정신이 건강해진다.

난 이야기가 좋다!

보경 스님 지음 | 도서출판 민족사
 국판 (140×210mm) 280쪽 | 본문 2도 | 값 12,000원